

보사위

환경처에 대한 감사를 벌인 보사위에서 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환경운동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촉구.

朴英淑의원(평민)은 "군산 시민의 63%인 9만5천여명이 동양화학 TDI공장이 전을 요구하면 무공해공장이라고 할지라도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라"고 질투하고 "정부가 계속 해서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제2의 안면도 사태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경고.

宋斗瀾의원(민자)은 "본인의 조사결과 유독물질인 6가 크롬에 대한 환경처의 업무보고 내용이 명백한 허위도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이른국회의 고유기능인 국정감사업무를 방해하고 국민의 눈을 기만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사진을 증거물로 제시.

보사위

30일 환경처에 대한 이를째 국감에서 朴英淑

는 徐부장의 답변이 있었다. 淑李鎬鎔의원(平民)은 전 날에 이어 이날도 감사벽 이 단순해 효율적인 감사를 하지 못했다고 불만. 柳俊相의원(平民)은 자신 이 질의한 안기부의 민방 설립 개인투자에 대해 안 기부측은 공모처의 요청에 중언재택을 집요하게 요구 해 난색을 표시한 여당측 과 한바탕 공방. 이때문에 감사가 1시간 이상 지체되자 曹明秀의원 주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인 장을 이리다가 다른 의원 접해있는 전주제지 등 5개 들은 예정원질의도 다 못하 업체가 별도의 폐수관을 설 치, 배출허용치를 초과하는

나중에 거론하자 "고제 의해 일단락. 계속된 질의 에서 朴英淑의원이 黃위원 장쪽을 향해 발언을 하자 黃 위원은 許南薰장관을 가 리키며 "지쪽을 보고 해달라" 고 주문했고 이에 朴의원 은 위원장이 장관을 대신

BOD(생물화학적산소요 구량) 2백㎖의 공장폐수 4 만3천t을 유출시켰었다" 면서 특별여부를 추궁.

群山TDI공장 추궁

환경처에 대한 보사위 의원들 감사에서 平民黨

측은 풀리우레탄합성수지원 료인 TDI제조群山공장(東洋화학소속) 이전문제를 둘러싸고 중언재택요구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추부터 정 회에 들어가는 신정전. 朴英淑의원(平民)은 지난 88년10월로 공장지전소사를 담담했던 당시 환경청장은 주 민의 집단반발을 들어 공장 입지를 재검토할 것을 群山시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 다"며 "이제" 환경청의 의 견을 제시했던 당시 조사팀 3명을 소환, 배경설명을 들

자"고 요구. 이에 許南薰환경청장관은 "내가 먼저 설명을 한 뒤 미 진한 점이 있으면 이들을 출 석시킨다"며 "이런" 버티 기"를 시정해 심판. 朴英淑의원(平民)은 제2의 安眠島사태가 될 수 있는 심각한 환경문제"라 고 지적한 뒤 "이로써 환경청 행정개혁도 한편의 부자연 국민의 환경질병자극에 의한 장 치가 아니라 무리한 요식행 위에 불과하며 부당한 개발 사업의 면죄부를 할 뿐" 하고 있다"며 許장관과 임부의 담

신의 추궁을 시노.